

대장경 1000년의 해를 맞아

# 불교축제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해야



불교계 문화축제 중 대표적인 선운사 보은염 축제. 선운사 장전 설화에 등장하는 검단 선사와 관련한 축제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현재 전국에는 1178개나 되는 많은 지역 축제가 있지만 불교문화축제는 열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전만 해도 지역 축제는 280개쯤이었다. 한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싶으면 그걸 흉내 내서 소재나 내용이 엇비슷한 축제가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890개가 새로 생겼다. 자치단체장들이 업적 과시용으로 저마다 축제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축제 내용만 충실하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는 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전남 함평은 나비축제로 매년 50만명 넘는 외지인이 찾는 명소가 됐다. 성공한 축제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야기가 있는 축제라는 점이다. 관이 주도해 만들어진 성격 없이 그냥 먹고 놀기 위한 축제는 관

객과의 짜증만 부를 뿐이다. 지역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풍물이나 자연과 조화가 어우러진 소재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불교계에도 대중화의 한 방편으로 축제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신도들의 공동체

## 1178개 지역 축제 중 불교 10여 개 뿐

의식 고양이 요청된다.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는 축제의 자산이 많다. 가무백희(歌舞百戲)의 근원도 그렇고, 고려시대는 사찰에서 '만석놀이'라고 불렀던 그림자 꼭두놀음도 있었다. 영산제(靈山齋) 뒷풀이 형식이지만 가무를 곁들인 '삼회향(三廻向)놀이' 등 다양한 연희(演戲)

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612년 백제의 미마지(味摩之) 스님은 일본에 건너가 오(吳)나라에서 배워 온 기악무(伎樂舞)를 맹정(櫻養)이란 곳에서 소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 백제 스님 미마지가 일

본에 처음 전한 기악무는 사자놀이를 포함한 탈놀이였다. 그것이 당시 일본 귀족사회에서 보호를 받기에 이르렀고, 사월초파일과 7월 15일[齊會]날에 사찰의 연중행사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되짚어 보면 백제에서도 탈놀이가 불탄일(佛誕日)과 백중일(百

種日)의 연중행사 중 한 절차였음을 추측케 한다.

기악에 사용된 가면은 지금도 초기 것에서부터 일본의 정창원(正倉院)과 동대사(東大寺)에 보존되어 있다. 다만 기악무는 전승이 오래전에 중단됐기 때문에 그 원형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악은 전부 10과장이었고, 과정의 순서는 일정치 않았다. 이 모두는 사찰 연중행사의 하나로서 전승돼 왔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과 춤의 형태까지도 불교의 영향이 다분했음을 짐작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지난 가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는 문학행사를 중심으로 만해사상을 알리는 '만해축전'이 있었고, 경남 함천에서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열렸다.

올 해 대장경축전은 인류사 최대의 문명 총서이자 최고의 목판예술인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있는 새로운 지식혁명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는 인종, 세대를 망라한 선지식들의 마음속 지혜를 깨우는 대장경 이운행렬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사물 퍼포먼스와 퓨전 타악공연 그리고 대장경 뮤지컬 '천년의 꿈,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다'가 공연됐다. 새 천년 대장경에 대한 염원의 마음을 타임캡슐에 담아 봉인하기도 했다.

지금도 거의 완벽한 목판본으로 남아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목판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모든 불교 문헌을 집대성한 당대 최고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

나무로 새긴 대장경이 오늘날까지 보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가 숨어 있다. 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은 동편의 가야산 자락과는 대략 20°정도, 서쪽의 비봉산 자락과는 10°의 경사각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맑은 날 햇빛을 받는 시각이 4계절 모두 다름을 의식한 지혜가 숨겨져 있다. 이런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장경각은 해인사 경내에서도 가장 낮은 온도와 다습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다라장과 범보전의 내부 공간 기온은 온도차가 2℃를 넘지 않는다. 상대습도는 통상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조할 때에도 40% 이하로 내려가는 일도 극히 드물다. 이는 건조에 의한 경판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선조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몽고군 침입을 격퇴하려는 민족적인 열원에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판각한 팔만대장경은 지금껏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장경판을 통해 초조대장경인 북송의 관판대장경과 거란판대장경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문화사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도 하다. 문화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장경 조판으로 하여 인쇄술의 발달과 출판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라다크(Ladakh)는 매년 6월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헤미스 축제(Hemis Festival)가 열린다. 티베트불교가 주축하는 대표적인 불교 축제로 무용수들이 신과 악령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춘다. 공연은 선이 악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극에서는 매년 4월이면 전역에서 송끄란이 열린다. 태극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송끄란 축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불교 축제이기도 하다. 이 기간 동안 어디를 가든 웃음 가득한 얼굴로 축복을 의미하는 물을 뿌리는 태극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양한 축제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송끄란'이란 말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조상에 대한 숭배가 깃들여 있고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다. 네 번째는 사회에 기여한 사원과 승려들에 대한 존경심이고,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 여섯 번째는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연화정신이 집약된 멋진 축제를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친 일상에서 흥을 통해 잠시나마 낙담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불교축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소재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장경이 그 중 하나의 좋은 예이다.

이강렬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penkr@hanmail.net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서킨 **효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볼심 깊은 볼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회 1포(40g) x 60포 (2개월분) 100,000원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힘들고 고통스런 길고 긴 산고 끝에 드디어 국립한국기술 종합 대학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사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동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미얀마 종교성 장관 미팅에서는 국립한국기술종합대학 착공에 따른 계반 사항을 협의했으며 대학교 관리자는 종교성 장관으로 운영자는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책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장관과의 미팅 이후 5만평의 학교부지에서 착공의식을 행하였으며 공사 진척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학생모집 등 개원에 따른 계반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미얀마 종교성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국제불교대학' 한국총괄본부건을 위탁 받고 이로써 미얀마 국립 국제불교대학 입학 및 계반업무는 한국총괄본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농협 301-0016-0537-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문의 : 02)733-5670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대표전화 02)733-5665